조선 후기

1. 서론
2. 조선후기 향촌사회 구조-항진

답당의 양상
3. 향촌 사회 구조의 세 유형과 탈춤

의 부상
4. 호남지역 향촌 사회 구조와 탈춤

부재 원인의 한 측면
5. 후속 연구에 대한 전망

박 중성

조선후기는 전 부분에 걸쳐 변화의 양상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국사학은 물론이고 국문학에서도 이 시기를 주목하여 여러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대상으로 이 시기가 다가서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 향촌 사회의 구조, 그중에서도 특히 항전 답당의 양상을 검토하여 탈춤의 지역적 차이와 관계적 전승에 대한 원인의 일환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고는 탈춤의 연구가 아니라 탈춤에 관한 연구이다. 즉 탈춤 전승 및 연행의 현장에서 탈춤을 조사하고 그 대사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탈춤 연구를 위한 주변 정리 작업에 해당한다. 기실 기왕의 관련 논문들은 탈춤을 임계적 관점으로 조망하여 그 실체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었다고 본다. 그러나 탈춤에 관한 연구의 본격적 시각과 성과는 탈춤을 연구한 성과에 비하여 대단히 미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탈춤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주어진 최우선의 해결 과제가 무엇인가는 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곳에서 파생된 탈춤이, 곳이 연회적으로 가장 발달한 호남 지역에 전승되지 않는 원인의 일반을 구명하는 작업에 관련 연구자들은 많은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기초
2. 조선후기 항촌자의 구조-항촌 사람의 양상

16세기 중반 경에 항촌 사회의 지배권은 고려지속인이 지배하였으나, 그들은 신분적 위력의 상징인 승찬을 보유하여 중앙에 의존하였다. 17·18세기 항촌사회의 신분구조 변동과 (儒·郷), 한국문화 11, 1990 참고.

(2) 金仁杰, 조선후기 항촌사회의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韓國史論 19, 1986, 318면 참고.

(3) 鄉이라 함은 郷로는 말한다. 이들은 鄉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는데, 대체로 座首 1인과 邑官 2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수령을 보장하는 직책을 맡았다. 좌수는 이방과 병방의 사무를 관리하고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사무,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상례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사는 '吏郷'이라 명칭하는 기록이 산재되는 바 항촌 사회 내에서 역할이 상당히 근절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담당 업무의 중점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겠는데 행정 실무 기능이 어디어치나 행방에 있었기 때문에 항촌의 행사는 민자로 이씨층의 수위가 확보될 수 밖에 없었다. 영남의 경우, 타지 역과 달리 유가 항과 교섭하면서 항촌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씨층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씨층은 자체적으로 세력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했을 것이다. 《安東鄕孫事跡通錄》은 이 지역 이씨층(항리)의 지위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이들이 유가 항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기반을 다져나간 좋은 보이가 된다. 안동의 계절적 사례는 화회변신궁들이와 같은 모습으로 담당한 인물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던 관인이 된다. 《安東鄕孫事跡通錄》에 가 본 19세기 조선 후기의 항리, 일조작 1990, 82면~152면에 보고하였다. 화회변신궁들이와 관련성이 검토는 예를 따로 하여 논의한다.
로 규정되었으나 이는 수명권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행건을 장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속성"과 "치공" 사이에는 종속의 관계가 점차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 도 지역 간에 편차를 보여주는데 유향소나 행건을 중심으로 한 유와 향의 양상이 그것이다. 유향소나 행건을 완전히 장악하여 행건을 담당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행건은 행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양 세력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한편으로 중앙 정부의 자멸로 인하여 사대부 즉 사족층(儒)의 형성이 어려웠던 지역도 있어서 행건이 행건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사층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양상은 대체로 18세기 전반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지주제의 신분제라는 두 축이 주요가 되어 접지역의 관계가 신분적 상하 관계와 상응하지 않게 되자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4) 통관의 이론에는 "속성"과 "치공" 사이의 관계 설정, 곧 행건과 관련된 이들의 역량관계가 새로운 구역을 맞이하면서 변동의 양상을 노태할게 된다. 반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민수들은 관리와 결합하여 호적상에 "코드"로 등록받는 것으로 신분상의 큰 방면을 삼았던 사정과 기존의 "儒"가 지녔던 경제적・신분적 특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5) 기존의 향촌 사회 지배권은 외형적인 과격은

(4) 고석규, 19세기 향촌지배체계의 변동과 농민향락의 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1, 13면 참고. 이 현상은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신분정체의 변동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곧 승민이 중인을 거쳐 "儒"로 상승하는 것이 주요한 "儒"와 호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동이다. 이는 "儒"이나 "儒"(死後)이나 하는 신분지역의 염정성이 단단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나온 이유의 선비 및 양반 풍자에 따라 성격과 관계된다. 신분지역의 변화에 관해서는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지역연구, 일조작, 1993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5) "民수 가운데 좀 부유한 농민들이 관리들과 인연하여 다라도 무책임한 경우가 영에 들며 "儒"를 훼손하여 인적을 "儒"로 개념하는 경우가 그 만이 아닌 것이다."
(일본문 128, 정조 7년 4월 25일)에 따르면 "일본이 심각과 같이 없고 道俗 이 하물어서 10여년례로는 옹지 않은 힘이 많은 것이 더하더라도 원래 無建 정도의 사량이나 "儒"와 처신과 내력을 얻지 못하는 농민들이 이들을 고치고 성이 같은 名家의 향토를 따르며 혹은 것으로서 논리의 정치는 임상에 이르러고 해석어로 인해 전신을 도모하는 사가 한 옷이 아니다."
(일본문 193, 정조 10년 1월 22일)가 바로 그런 자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석준, 조선후기 사회과 변종연구, 일조작, 1983, 234면~299면을 참고.
유지된 채 내적으로 많은 변질을 겪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儒과 鄉의 법주에 들지 못했던 향리층이 가세하면서 향권을 둘러싼 국면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향권을 둘러싼 이러한 역학관계는 전지역을 통해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지만 지역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향촌 지배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이 된다."(9)

우선 각 지역별로 유향소나 향회의 중심으로 한 "儒과 鄉의 관계를 잠시 검토한다.

1. 지금 무엇과 鄉所의 所任은 "儒을 業으로 삼는 자가 끼리 하는데, 그 門閥이나 形態에 있어 儒라고 해서 더 높고 鄉이라고 해서 높이 것이 아니다. 鄉서는 鄉南과 달라 儒가 한반 鄉所에 높은 높으므로 일체 士族의 모임에 기여주지 않는 다. 우리 고유에서는 근대 선비가 모두 그 業을 포기하여 升廩者(鄉校校生) 또한 鄉任으로 삼으니...[일중은 인용자](7)

2. 湖西는 士夫之鄉이기 때문에 儒와 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 법(堭廩之用 士人)을 실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湖南과 湖北에도 또한 儒과 鄉의 퇴가 있다. 오로지 鄉南은 吏役이 가장 심한데, 유·향이 나뉘지 않고 鄉案에 들어가며 仕職에 도 자에가 없고 비록 鄉任子姦殺은 천한 자라도 漢官이 될 수 있으니...[일중은 인용자](8)

3. (태조가) 나라를 창건하고는 "서북지방 사람을 높은 바탕에 응용하지 말라." 는 명을 내렸다. 그런 까닭으로 평균.함경 무 도에는 삼백년 이상으로 높은 바탕을 한 사람이 없었다. 혹 과거에 오른 자가 있다 하여도 바탕이 수명 정도였고 가끔 휴년과 시종 양만자에 오른 자가 있었으나 드물었다. ...또 나라 숙주이 문을 중하게 여겨서 서울 사대부는 서북 지역 사람과 혼신하거나 벗하지 않았다. 서비 사람도 또한 감히 서울 사대부와 더불어 동등하게 여기지 못하였다. 그리고서 서북 양도에는 도지사 사대부가 없게 되었다.[일중은 인용자](9)

이러한 자료로 보면, 영남에서는 "儒가 유향소나 향회의 매개로 향권을

(6) 한편 국사학계에서는 조선후기 향촌 사회의 지배구조를 일반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지역적으로 드러난 미세한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본고에 서는 이 점이 대한민족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7) 이학태(1607-1684),《草薫集》권23, 《성곡서인유생관학구》, 김인철, 앞의 논문, 1990, 309면에서 재인용.
(8) 《정조실록》정조 20년 2월 중공. 김인철, 앞의 논문, 310면에서 재인용.
(9) 《選里志》〈八道總論〉중 '함경도'편. 음유문고 62, 53~54면.
장악했으며 이론에는 왕의 세력이 왕과 밀접하게 교섭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호남에서는 왕과 엄격한 차별을 두면서 자체적인 세력 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서북 지역은 전통적인 왕의 존재가 거의 없었 다고 할 정도로 삼남과는 경우가 많았다. 삼남의 경우,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왕을 배제하고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의 향방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각 지역의 항촌 사회 구조 및 왕권의 추이는 본고의 논의에 서 중요한 논문이 된다. 이는 우선에서 논하기로 한다.

이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이시총이다. 왕권의 정비, 군란, 훼철의 관란, 집단의 지배, 노비의 유폐 등이 기구를 중심으로 왕권을 보장하는 역 할로, 이 가운데 18, 19세기에 들어 부세운영과 이들이 역할이 거지는 것은 왕권, 서원청, 통인청이었다. 지방 왕권은 율신과 년배, 응에 대별 되지만, 이 중에서 통상 이시총이라 함은 가문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년배를 주로 의미하였으며, 이 중 행방은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율신의 지 위를 보장받았다. 왕권의 지배자로서 왕권에서 점차 배제되면서 이시총 은 ‘왕복’과 ‘왕복-의사’의 지배구조는 세세히 자리를 잡아 된다. 그러 나 이런 사정도 왕권-상권-의사-민’의 지배구조는 세세히 자리를 잡아 된다. 그러 나 이런 사정도 왕권-상권-의사-민’의 지배구조는 세세히 자리를 잡아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에서 복잡했던 관료제의 항촌 지배가 외국이 이르게 된다.

3. 항촌 사회 구조의 세 유형과 탈출의 부상

이상에서 살펴 본 항권의 장악과 관련된 각 계층의 양상은 기실 민을 전체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10) 이시총에 관한 논의는 김용동, 조선후기 지방 이시집단의 조직구조 상·하, 한국학보 28·29, 1982년에 자세하게 했다.

(11) 이시총과 관련하여 탈출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으며 이혼상, 조선후기 합리집단과 탈출의 연행, 동아연구 17, 1989에 서 이를 논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시작은 분명한 조명에서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탈출의 부상과 관련한 외재적 연구로서 합리 집단과의 관 련성이 논의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결국은 민의 통제와 지배의 문제에 귀착하는 것이기에 儒·郷의 審民 통제 방식과 収·郷의 대민 통제 방식, 그리고 수령의 審民 통제 방식을 곳이나 탈출 등과 관련시키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儒의 입장에서 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령이나 収를 견제하고 민을 자기 세력화하는 방편으로서 곳이나 탈출의 유지·전승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선후기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에서도 儒은 洞契 조작과 같은 검사체를 통하여 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의 鄉契과 같은 조작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구성 내용과 목적상 상이한 두 계열의 조작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접속 형태를 보인다. 조선전기 鄉約 보급 과정에서 시립들이 順啓,順啓契의 연원을 같이하는 ‘鄉村結契’들을 향약체계 속에 수탈하여 하부조작으로 응용하고자 한다거나, 임란 직후 儒가 上·下啓契의 형태로 민의 조작을 소관하여 반단 항촌사회의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6, 17세기의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 출현은 지배계층과 기층민이 촉각이라고 하는 곡 turno의 생활기반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한 것으로 儒의 신분적 질서를 재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洞를 배제하는 환권의 항방과 관련하여 상·하합계의 동계 운영은 단순한 신분적·사회적 관념이나 의식보다 洞의 재정 및 洞内備役과 관련된 경제적인 목적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민의 요구와 임장이 점차하게 표출된다. 이런 현상은 수령 및 이시층과의 세력 간등 및 대립과도 연결되어 민을 어可以更好 포용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높아져 되는 것이다.

향중에 鄉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世族을 별도하기 위함이다. 세족을 변별하여 무엇에 쓸 것이가. 장차 그로 하여금 一鄉에 紀錄를 세우고 民俗을 바로게 하기 위함이다.(12)

표면적으로 일향의 민속을 바르게 하겠다고 나섰으나 사실은 향안을 통해 신분적,경제적 특권을 보장받고 향권을 유지하기 위한 땅의 임장을 대변하고 있는 기록이다. 땅이 성리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향권을 행사하는 대에 있어서 마을곳과 같은 촌계류 조직의 공동 행사인 이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치의 차원에서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마을곳은 종교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땅의 자체적 결속력을 유지·강화하는 데에 유용한 것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더욱이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땅가·郷의 민속을 바르게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마을곳이 온당하게 보일 리가 만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곧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민의 자체적 조직인 촌계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주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 시기 인근 안동의 경우에서 상·하합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584년 창설된 河回洞契에서 보면 ‘下人各立少契’라 하여 땅의 촌계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618년 河回洞契의 重設은 ‘小契禁斷’이라 하여 상·하합계의 형태로 촌계류들을 흥수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결과가 종양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나타났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1692년 宜寧에서, 1735년 永川에서 散見되는 두 조직의 대립·반목은 이 시기의 정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본다. 특히 18, 19세기에 와서 공동탈매가 일반화되어 조직 조직이 수취 단위가 되면 기반과 임장을 달리는 두개의 조직들은 보다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사정에서 상·하합계의 실상을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땅의 촌계류가 지닌 본래적 성격을 예로적 임장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회별신곳놀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성격을 재조직할 필요가

(13) 여기에 관해서는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 민족문화사, 1996, 159~269면을 참고.
(14) 땅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촌계류의 행사들은 대체로 기층 민속, 혹은 무속적 신앙에 관련된 마을곳이나 婚喪 등 공동체적 생활에 직결된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섬세한 이축의 전통적인 朝祭나 洞祭, 농악, 무례와 조선시대 촌계류를 상관 시켜 볼 때 이들 조직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지배여건이나 체계와는 일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체 변모를 겪어왔다고 보인다.
있다.

군을 평편하고 하여 배격한 이유는 이념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마음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농민의 공동체적 조직이 양반의 지배 질사를 확고하게 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농민의 공동체적 조직이 해체하기 위해서도 군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다.\(^{19}\)

국가 권력이나 지방 양반들의 힘을 배경으로 부락제는 종래의 군에 계속 타격을 가해서,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락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강한 신층력을 가지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굿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굿에 내포된 탄출을 위험한 여러 형태의 민속 예술 역사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굿은 없어지지 않았다. ... 그러므로 부락군은 손속되고 부락제는 부락군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그것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자 했다.\(^{16}\)

조동일 교수의 진술은 굿과 탄출의 변화를 요령있게 설명해 내고 있다. 그러나 뜻의 입장에서 가한 굿이나 탄출에 대한 타격이 마을군에 농악대와 평균이 함께 하는 이중적 형태로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한 문은 마을군 변화의 한 측면이지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마을군으로 변화는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조동일 교수의 다음 견해를 보자.

제나 굿이나 하는 싸움은 양반의 농민의 자유로운 감정 발산까지 역제하느니, 농민이 일년 중 어떤 기간 동안 만더라도 언론의 자유로에게 갖는 대서 생기며, 부락군이 탄출으로 전환되면서 이 싸움은 더욱 심각한 의미를 따게 되었던 것이다.\(^{17}\)

뿐만 아니라 뜻의 민에 대한 혹은 민의 조직에 대한 의식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退溪의 溫溪洞規(1568년) 중 문세에서 보인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뜻의 입장들 가령, 본주이건 태주이건 무례불순한 자, 무리지어 술을 마지고 난동을 부리는 자, 천방에서 벌목하는 자, 발에 모래흙을 쓸어 보내는 자 등에서 보는 것처럼 민에 대한 통제적 성격이 후대로 갈수록 매우 완화되어 강력한 통제나 지배의지가 무의미해졌다고 할 만큼 희류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는 정차 뜻에게서 유리하게 말해 주는 민들도 포용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만하다. 이해준, 조선후기 동계·동악과 촌락 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 향락연구, 문음사, 1990, 137면, 131면 참고.

(15) 조동일, 탄출의 역사와 원리, 기운, 1988(제편), 67면.
(16) 조동일, 위의 책, 69면.
(17) 조동일, 위의 책, 71면.
앞에서는 곳에 내포된 탈출이 마을제의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 이어서 마을의 또 탈출으로 전환했다고 한 것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조동일 교수의 진술을 곳의 체질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곳이면서 동시에 곳이 아닌 형태가 결국 모두에게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마을제의 타격으로 마을의 변화는 또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 곳이면서 곳이 아닌 농어의 형태가 무엇인가는 현상하는 하회별신굿놀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회별신굿놀이는 별신굿이 행해지고 나서 탈출이 따로 연행되는 것이 아니라 곳의 철자 가운데 놀이가 포함되어 있어 곳이 곧 탈놀이로, 탈놀이가 곧 곳을 정립시킨 중요한 형태이다. 특히 하회는 풍남 떡달의 동쪽 부락으로 떡달 유장소를 통해 향국을 장악했던 대표적 부락이면서 동시에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한 위세를 떨친 떡달의 영향권에 근접해 있던 지역이다.(18) 따라서 향권 장악의 차원에서 떡달보다 저극적으로 민을 통제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내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민의 혼례류 조직을 운용하는 방편이 필요했을 것이다.(19) 여기서 떡남 남인들은 숭종 20년 ‘갑술환국’ 이후부터 이와 정권에서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진출이 막혀 있었고, 따라서 그들 수립을 전적으로 향권 사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향촌 사회에 대한 관념과 향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

(18) 민과들인 특정 지역 출신의 향리 자손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려 한 사례는 서민을 제외하고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이혼상, 앞의 책, 81쪽.

(19) 16세기 말까지 안동 지역은 민과와 떡달이 함께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한 수 있다. 떡달과 떡남(농사)이 병설되어 서로 관리된다는가, 향리의 관리, 반의, 후손, 심지어 동본, 떡달을 떡남 집단이 항상 임직에 하등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론을 알 수 있다. 《서민동향장사적기록》(서민동향장사적기록) 이는 안동 지역의 민과는 신사당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등 모두 신사당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17세기 초에 이르러 ‘신사당체제’가 일어나면서 사제의 신사당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사제의 이로운 배제에 관해서는 박순, 조선중기 사제의 향촌지배론 확립-16·17세기 이로운 배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향촌연구, 민음사, 1990, 67~95쪽을 참고.
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한 관심을 가졌으며, 료의 지배력은 비교적 늦게까지 지속될 수 있었기에(20) 죽의로 규정한 종교적 행사인 곳을 인정하기 보다는 곳의 종교적 성격을 다소간 약화시키면서 곳을 파괴하지 않는 곳의 개질 변화가 선택된 이유의 일환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종계류 조직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료와 타협하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곳의 개질 변화는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보겠다. 마을곳의 주체인 민은 농악대곳의 잠적들이나 무당곳의 잠적에 의속해 있었기에 이러한 형태로 곳을 농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곳이 탈출으로 전환되었다는 조동일 교수의 견해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던 무리가 없다. 곳과 탈출의 절묘한 결합을 통하여 료는 민에게 종교적 성격이 다소간 약화된 곳을 허용하는 대신에 민은 이를 통해 평소의 불만을 토로하고 발산할 수 있는 틈을 가짐으로써 향후 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본다. 박의 입장에서 보면 상·하합계의 형태 속에서 민의 종계류 조직이 자신들의 하부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면 그만이었던 셀이다. 곳과 잠가 공존했으나 곳은 제로 인하여 그 성격이 약화되었을 것이고, 냉과구로서 곳은 개질 변화를 통하여 탈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는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동일, 박경규의 소규모 대체 및 건재의 차원에서 민의 종계류 조직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수령권과의 결탁을 통하여 중앙 정부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는 방면으로 곳과 탈출을 관여하고 추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배계층인 료의 입장에 대한 민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한 형태가 하회멸신곳높이이고, 이것이 하회와 같이 편재적인 자연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곳이면서 탈출의 특이한 형태로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에서 좀 더 독립적으로 발전한 모습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에 의해 곳이 하회의 경우보다 상당히 약화되는 대신 탈출이 곳의 전통을 이어져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정을 필자는 야류·오광대에서 찾고

(20) 고석규, 앞의 논문, 20면 참조.
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중심으로 한 '유·향-이·향-수령-민'의 관계 및 지역적·지리적·경제적 여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서봉이 말궁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건고》의 풍속에 정월 보름날 고을의 성도가 집시 소를 거꾸로 타고 가문고를 들고서 공방으로 들어와 공(子衿)에게 절하고 밤을 들고 나가는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재림 신주之事이다. (25) (公守 假裝돌이)

清安의 풍속에 3월초가 되면 성공에 성무가 있던 뇌를 연고 국적을 구준에 두고 길을 걸어와 정착해지고 있다. 그리고 무작으로 하여금 수수식을 갖추어 성과 복을 미스럽게 올리면서 관서와 국방에 이르기까지 신에 제사를 지내며 하고... (26) (清安国 서)

군위의 풍속에 3월에는 성서에 갑세가 있는데 사정 상장군당이라고도 한다. 매년 단오에 고을의 성공에 성무가 있던 뇌를 연고 받고 받을 타고 갖받을 들고 복을 치며 신을 맞이하여 고을에서 놀았다. (27) (군위 감유신굿)

삼척의 풍속에 성서가 용인부를 작은 함에 넣어 통행(治所) 동쪽의 나무 밑에 묻었다가 매년 단오에 성무(戶長)가 음식을 제사들 나누고... (28) (삼척 금동취神祭)

木牛를 조성하여 제사하며, 다음날 아침에 다음이머리에 절관을 쓰고 옷에 흥대 령 예복을 입고 출동하여 목을 높이게 갖추고 무겁게는 홍단령 제복을 입고 무검이 목을 끌고... 동편에 이르러... (29) (제주도 임춘굿)

일제기 金海府(本府)의 임춘굿을 보면, 과시에서 목우르르 만들어 호장이 공복을 갖추고 장파를 두드리고 넨라리를 불며 앞에서 이끄는 무리를 따라 동쪽 성문 밖으로 나가... (30) (김해 春耕祭)

(21) 《東國歲時記》正月 上元條.
(22) 《東國歲時記》三月 月內條.
(23) 《동国籍歳記》五月 端午條.
(24) 《東國歲時記》五月 端午條.
(26) 李學達, 《東紀日知》春耕制, 《洛下生全集》下, 박진태, 위의 책, 299면 참 고.
5월 1일 시장터의 곳곳에서 출발하여 서남대로 앞세우고 악사, 호장, 수노, 무녀, 무부, 관속, 옷민 등의 순서로 상봉당에 올라가 마당을 한 뒤 두통각시장신당에 내려와 마당을 하고 이어서 현청 앞에서 또 마당을 벌이는데, 이때 왼님과 윤명 관속이 나와 참배한다.\(^{27}\) (영산 文戶長軍)

위의 사례는 이서중이 떠의 마을로 갑이 관여하고 있으며, 동헌에서까지 그 행사를 벌여낸 사례를 보여준다. 이서중의 관여에는 수령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나아가 동헌에서 이 곳이 벌여졌다는 사실은 수령이 떠의 마을을 용인하고 있었으며, 음성적으로도 관여하며 지원을 개연성을 시시한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이러한 것은 아니고 수령에 따라 이를 폐하고자 했던 사례도 산간되는 바이다.\(^{28}\) 그리고 지역에 따라 태백산신묘이나 강류의 단오굿처럼 마을급이 그대로 진행되기도 보다 유교식 마을계가 혼용된 형태로 변모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 어느 경우도 수령과 이서중의 마을로 대한 관연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향촌 사회 내에서의 쾌락통제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서 오광대와 야류를 검토하기로 한다. 관련 기록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한다.

동춘당을 빌어 보니 아전 무리들이 장려를 갖추어 연출을 한다. 이것이 무엇이 난고 몰으니 해마다 치르는 관례라고 한다. ... 관례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어두웠다. 조금 있으니 장려객들이 생을 치고 복을 두드리며 절벽 뒤편이라는 앙 통이 철저히 따들며 일제히 관례의 마당으로 들어온다. ... 月頃과 대면, 老자와 둘가씩이 기이고 공상의 무리들이 순서대로 번갈아 나와 서로 바로보며 회통하며 혹은 미처 날되며 소란스럽게 떠들다는가 혹은 천천히 옷을 올한다. ... 이 곳의 장려는 咸安의 것과 대략 비슷하지만 익살은 나온데 복색의 구름은 다소 벗어졌다.\(^{29}\)

\(^{27}\) 《한국민속통합조사보고서》(경상북도편), 576쪽, 박진태, 앞의 채 참조.
\(^{28}\) 李龍和, 〈朝鮮民俗考〉, 《啓明》19. 1927, 69면과 70면에 靑風郡 名官 金延藩가 마당을 근절시켰다는 사례가 있고, 삼척의 금오실신도 김효원이 실식부사로 부임하여 오금검과 神衣를 불태우고 성황의 위치를 옮겨 놓고 친히 제사를 지내려고 고을 사람들의 반류가 있었다고 한다. 박진태, 앞의 채, 305면 참조.
\(^{29}\) 吳宏默, 《固城嘉績錄》高宗 30년 12월 30일. 《韓國地方史資料叢書》18, 여강출판사, 1987. 이혼상, 앞의 채, 153면 참조.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무격이 서로 바꾸어 가면서 향사를 짓는데 매해 단오날과 설날 그믐날에는 윤례 이곳 고성 관아의 작위의 구름으로부터 현대의 각 빌목懷揚 또는 이르기까지 풍온당에 제물을 갖추어 놓고 제사를 올릴 때에는 모두들이 즐
익을 올리면서 일체히 하나가 있다는 것이다. (30)

고성 오광대에 관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31) 이와는 달리 현대 오광
대와 다른 계통의 탐골이로 추정하기도 하는 (32) 기록이다. 오광대와 관련
이 있던, 그렇지 않은 본고에서는 이서들이 천년관이라고 하는 특장 장소
에서 (33) 뿐의 곳을 행하고 자신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
격을 끈어들이고 심지어 타을 씁고 잡뇌를 했다는 사실은 미불굴이 마을체
로 변화하는 일반적 경우와 비교하면 대단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광대가 전승된 지역은 대체로 죽송 이재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안
동을 위한 장단성지역과 향촌 사회의 구조가 미세하지만 차별이 있지 않았
을까 추정된다. 현재 이 지역 향촌사회 구조 및 '유·향-이·향'의 관계
을 알려주는 기록이 드물다. 다만 거창, 창원, 창녕, 함안 등의 통계이 17
세기에 19세기에 걸쳐 의기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 지역에서도 광범
위하게 향안이 작성이 된 향의 향촌 지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쪽계와 향의 역활관계를 검토하기 어려우나
오광대의 전승지역이 대체로 물자 수송의 요지이거나 관습이 있던 곳, 혹은
큰 장터가 열린 곳이었던 점은 이들 지역이 안동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
으로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해준다. 향촌
사회의 구조나 향련의 추이는 여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관의 기록이 보이는 19세기 말에 와서는 사정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서쪽계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자신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대적으로 향의 길장관

(30) 김관, 위의 책, 이훈상, 위의 책, 153쪽 참고.
(31) 이훈상, 앞의 책, 153쪽.
(32) 박진배, 앞의 책, 307~308쪽.
(33) 풍온당은 이 지역 향리 집단이 자신들의 안녕을 비는 제당이다. 이훈상, 앞
의 책, 154쪽.
계가 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에서 마을 전체의 곳에
이서가 개입하는 것과 자못 차이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바 이서층이
儒의 전체와 간접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는 수령권과의 밀착 관
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본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마을 전체의 곳
행사에 이서들이 관여하고 참여했다는 기록이나 조사가 보이지 않고 바로
이서 자신들을 위한 행사가 몇 곳과 탐논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
미롭다고 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상·하합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임진란 이후에
상·하합계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상북도의 대부분 지역(봉화, 예천, 인동,
자인, 낙성, 영해 등)과 경상남도의 함천으로(34) 영남 지방이 대부분이다.
호남 지방에서 상·하합계가 이 시기 이후에 크게 발견되지 않는 점은 민
속 연구의 중요한 시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하튼 이 지역에서
경상북도의 경우와 달리 상·하합계의 현상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은 이 지역의 존례류 조직이 류의 동계·동약 조직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상·하합계의 현상
이 드물었다는 점은 유·향·이·향·수령으로 맞물린 향권의 추이가 안
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과 조금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중앙 정계의 진출이 봉쇄되지도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피폐적이지
않으면서 물자와 운송과 교류가 빈번했던 지역적 특성에서 류는 일찌기 부
여받은 신분적·경제적 특권을 이서층과 크게 대립하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권의 장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점이
향권에서의 류 배제라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지역 류의 습
습에 대한 견제와 대립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보는 것이다.(35) 이 과
정에서 류의 존례류 조직은 류의 공격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34) 전주에서도 이 시기에 향약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것이 상·하합계의 성격을
지닌 것인지지는 별명이다. 박정하, 조선후기 천각 조직의 변화와 동계. 역사속
의 민족과 민속, 이론과실전, 1990, 148~150쪽 참고. 그러나 대체로 이 시
기의 향약 행사가 상·하합계의 성격을 띠 것으로 본다면 전주 역시 크게
따르지 않았다고 추정해 본다.

(35) 이는 역으로 이서층의 행동 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었음을 의
미하기도 한다.
있었고 익숙한 수령권과의 결탁을 통해 민을 통제하는 데에만 노력하면 되었을 것이다.

吏胥는 그 외형상 훌륭하게 근사하고자 했으나 실은 민의 생활 방식에 더 근접해 있었던 계층이다. 이와 같은 용의자에 이 시기의 신분 인식의 한 예가 보이는데, 공문과 사무를 다리는, 집객과 재능이 사람 중 하나로, 京外吏胥 및 낭정을 다스리는 데로 분류하고 있다. 성균관 유생 중의 한 사람은 "吏胥, 백사, 공사의 병이 한데 묶어 보이려 하지 않고" 하고 《농지》, 《상지》 이 스스로 고려인이 되지 않다 하여 정정한다. 《吏胥》에 대한 당시 시기의 인식은 이와 달리 방식이 평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중거일 수 있다. 거시의 세습과 관련한 훌륭한 대립 양상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향리의 사례와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이 사례는 익숙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만 수확하였다가 익숙한 표준이 18세기까지 신세의 족보에 족속과 범죄의 차등이 있더라도 모두 수록하였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吏胥派(郷吏派)를 받아들이며 별분없이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18세기 이전까지 쌍의 지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출이 19세기에 오면서 현실적으로 위험받게 된 사정을 향후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이어 수령권과 결탁하면서 훌륭한 이사 통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던 것이며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일반적 흐름이었다. 따라서 이사통제는 훌륭한 반감과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민의 측계량 조직을 활용했던 것도 판단되며 이 역시 이사통제의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지역의 상·하학계의 형태가 드물다는 점은 이 지역이 이사통제 경계로 훌륭한 민이 분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익숙한 이러한 대우에 불만을 가지면서 국가에 대해 재임을 면제받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게 되고 함께 민의 통제와 수탈을 위한 장치로서 민의 측계량 조직에 관여하면서 갈등력을 다지는 데에 노력했던 것이다.

훈라 희래, 부담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이사통제가 반대 급부로서 민을 통제하면서 수탈하는 데로 나아갔던 것이다.

(36) 정우, 조선후기 문화운동, 일조, 1988, 192쪽 참조.
(37) 《향지》, 《상지》, 《상지》, 《상지》 참조.
(38) 이춘향, 《상》, 《상》, 186~190쪽 참조.
(39) 정우천, 부담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이사통제가 반대 급부로서 민을 통제하면서 수탈하는 데로 나아갔던 것이다.
문제는 민의 촌계류 조직의 성격 변화와 유지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들 어 내는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민이 결합하는 상·하합계가 하회와 같은 특이한 형태의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제가 우위를 점하거나 마을제는 마을제대로 행해지면서 이서중의 보호 아래 마을곳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상·하합계가 같이 이루어 겠다 하더라도 민을 보는 민의 입장 차이가 민의 촌계류 조직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가의 문제와 식별된다. 안동의 경우와 달리, 이 지역은 민에 대한 민의 입장이 일찍부터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592년 유신의 <세계사약>에서 보면는 “合併安生 不計貴賤”의 표현과 1611년 수필의 陝川〈三里鄉約立制〉 중에 보이는 “士夫平人·庶孽·庶民·僕隸是も 모두가 一類”라는 표현 등은 땅대 통제나 지배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할 만큼 토유적인 상황을 말해주는데, 이는 점차 농에게서 유타·이탈되어가는 민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상·하합계가 드물게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 특별히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민의 촌계류 조직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민을 포용하기 위해 이서중의 최우가 반면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수령은 민의 귀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던 그 만이었기에 두 집단의 전제와 대립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제외를 공인하 는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 오형목의 기록에서 보면, 이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풍운당에서 떼집을 행한 것은 땅대 통제를 위한 정치적 장치 이자 민의 성향을 쉽게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런 행사는 관행에서도 행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령의 향촌 지배체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민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조직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 세력과의 결탁이 지역적 여건과 결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탈출에 국한시키는 논의를 진행한다. 오광대 및 야류의 진행 과정은

(40) 단편적 기록으로 이 지역 전체를 일반화시켜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추론을 시도한다.
아래와 같다.\(^{(41)}\)

(표 1) 돌로돌음의 몰이과정

| A-1 정초에 지신발기를 하여 이때에 얻은 전복으로 돌돌음의 경비를 증당한다. | + | + |
| A-2 한편 탈과 동을 만든다. | + | + |
| A-3 무사히 돌돌음이 마저시기를 바는 탈계를 시행한다. | + | - |
| A-4 길들이와 탈출돌음의 돌돌음에 출연한 문장을 한 출연자들이 풍물을 태리고 수영원이 주동이 되어 동체당, 좌방장군당, 멸물섬(마을의 대표적 공동 우물)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 + | - |
| A-6 한편 덩패기돌음이와 탈출돌음을 할 장소인 광장에 긴 장대를 세우고 기기에 매달 세개줄을 사방방방에 비대어 수많은 돌을 만다. | + | + |
| B-7 돌돌음을 하는 날 황혼에 대기 한다 혹은 샘이 있는 곳에서 농악 미, 탈출돌음군, 기타 길들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풍물에 맞추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탈출돌이 장소로 간다. | + | + |
| C-8 험허한 탈출돌이 장소에 도달하면, 험허에 참여했던 사람과 신명 있는 고문 사람들과 군거리 장단에 따라 덩패기 춤을 추며 논다. 이 집단단무는 술을 마시며 자리갈까지 행한다. | + | + |
| D-9 덩패기돌음의 총이 진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탈출돌음이 논다. | + | + |
| E-10 탈출돌음이가 끝나면, 출연자들과 신명 있는 관객이 어 luder 춤을 추며 논다. | + | + |
| E-11 탈출돌음이가 끝나면 출연자들이 탈출한 곳에 모아 놓고 고사를 지내고 퇴온다. | + | - |

군의 성격이 많이 탈색되고 연행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탈춤의 모습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42)}\)

\(^{(41)}\) 도표는 정상박, 오광대와 돌돌음 연구, 김문당, 1986, 54권, 56권의 것을 활용한다.

\(^{(42)}\) 오광대의 경우, 돌돌음과 달리 동체당 고사없이 탈채만 일부만 행하고, 길들이도 탈춤을 논다는 것을 알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덩패기 출영이도 빠져 있다. 험허나와 덩패기가 위주의 행가로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돌돌음에 비해 탈춤이 갖는 세의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상박, 위의 책에서 상세하게 논했다.
<table>
<thead>
<tr>
<th>목록</th>
<th>오광대의 농이과정</th>
</tr>
</thead>
<tbody>
<tr>
<td>A-1</td>
<td>지신 발기</td>
</tr>
<tr>
<td>A-2</td>
<td>탈재 작</td>
</tr>
<tr>
<td>A-3</td>
<td>탈제</td>
</tr>
<tr>
<td>A-4</td>
<td>매역</td>
</tr>
<tr>
<td>A-5</td>
<td>한내고금</td>
</tr>
<tr>
<td>A-6</td>
<td>밭농판준비</td>
</tr>
<tr>
<td>B-7</td>
<td>길놀이</td>
</tr>
<tr>
<td>C-8</td>
<td>밭배기춘놀이</td>
</tr>
<tr>
<td>D-9</td>
<td>탈춤놀이</td>
</tr>
<tr>
<td>E-10</td>
<td>떨놀이</td>
</tr>
<tr>
<td>E-11</td>
<td>천고사</td>
</tr>
</tbody>
</table>

하회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이 지역의 탈춤은 앞서 추정한 원인 외에도 이 지역이 갖는 지리적·경제적 여건의 상이함에서 또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광대와 아류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 모두 지방 도시적 성적을 지녔기에 때때로이지 않고 개방적 여건을 갖추었다. 

(43) 이 지역 탈춤은 급격한 부상과 전파를 계속해 나갔던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없는 지역이나 탈춤이 있었다고 하는 기타 지역은 도시 탈춤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면서 농촌 탈춤의 전승도 끝어진 곳이다. 이는 기존의 농촌 탈춤이 도시 탈춤에 의해 위축되었을 수도 있고, 도시 탈춤이 전파된 이후 양자 모두 전승력을 상실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아류·오광대는 하회에 비하여 탈춤으로서 독자성을 획득하면서 전한맛이나 송나나 양주, 봉산의 경우와 비교하면 농촌 탈춤의 잔업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44) 봉산
양주·송파의 탈출이 이 지역 탈출과 성격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사
인간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을 황해도 지역의 향촌 사회의 구조와
관련시켜 우선 논의하기로 한다.

셋째, 이순改章이 아닌 지역에서 상호영교의 관계 속에서
특유의 동제 및 그 지역의 특수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탈출의 발전에 관
여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황해도의 향촌 사회의 구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자료가 불분명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의 기록으로 대강의 사
정은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향토에서 민여의 풍속을 도달하며, 이집난 서원, 동제 등이 관여
하는 경우를 알 수 있다. 항리 중에서 가족을 밀하여, 상실·吏房으로
향리·서원 등이 관여를 둔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색을 둔다.

향토는 정조 고려가 있는 사부가 없고 다만 군포를 납부하는 자와 불참
하는 자 사이에 약간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해주는 울주가 향작을 만들어 시행하여 큰 성공을 거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에서 향작이나 향작을 중수할 때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울주가 이 지역에 향작을 제정하고 시행한 때가 1578년이다. 이
시기는 다른 지역에서 앞서 향작을 제정·시행한 때이며 비슷한 시기에
향작이 제정·시행된 곳은 이와는 상이한 관여에 의해서였다. 해주 향작은 비교
적 늦은 시기에는 그것도 제지하던 관여가 아니라 울주에 의해 제정·시행되
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토착적인 유가 거의 없었다고 알려진 서북
지역 특히 함흥에서도 1469년에 흥국장교가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이

것으로 알고, 종베祭儀와 발촌의 形成, 《古典文學研究》7집, 1992, 51~81면
이 있다.

(45) 백사가 광한한 탑인서 이 지역의 향촌 사회 구조에 대한 논의를 꼭하지 못했
다. 자료의 불분명한 풍속의 원인, 자료사적와 대차가 없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46) 《栗谷全書》 권16, 〈海州—鄉約〉. 정진영, 《학문과의 논문》, 1990, 113면에서 제
인용.
(47) 《楓草集》 권10, 《上金領相慨贊》.
蓋西土無真正有根基之士夫 只是不納與納布者 稍有別焉.
지역 향촌 사회의 구조가 삼남지역과 달리 서북지역에 근사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즉 토착적 훈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세력이 타 지역에 비해 대단히 미약함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훈 집단에 의해 향악의 제정·시행이 불가능했기에 의지인 음독에 의해 향악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왕릉이 1591년에 임안자가 불명한 상태에서 향악이 제정된 것은 해 주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향악을 실제로 시행하여 민을 통제한 세력은 훈 집단이기 보다는 족속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음독이 향악을 제정하고 족속을 설치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삼은 것은 훈가 아니라 향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향집은 삼남지역과 달리 이서층과의 통제와 관계의 관계에 만 노력하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서북지역에서 부세정수권 즉 향권을 향집총이 취하고 있었으며, 이서층과는 부세운영에서 상하의 수직 관계를 형성한 사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향집—이서의 제외적 관계가 서북지역 부세조직의 특징이며, 이것이 곧 향촌지배의 파탄적인 절서로 이 해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향집총에 의한 지배질서는 16세기 중반경 에 음독 향악의 시행을 계기로 서북지역 일대에 자리잡기 시작했던 사정(48)은 해서와 서북지역 향촌사회의 상동성을 방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향집—이서의 관계가 향권 추이와 밀접한 관련을 냈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뒤에 살펴겠지만 호남에서의 유—향, 유—이서의 건강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영남에서 훈의 향촌 지배원이 오래 지속된 것과도 구별된다. 한편 향의 성격도 삼남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포의 남부 여부가 향—이서—민을 구별하는 기준이라 한 것은 이들 사이에 큰 격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삼남의 경우와 달리 향—이서의 건강과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다가 보다 삼남지역의 향—이서의 경우처럼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토착적 훈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기에 설령 훈이 있었더라도 그 세력은 미약했을 것이고, 따라서 농민 통제의 차원은 영남과 큰 차이가 있었을 

(48) 고석규, 18, 19세기초 평안도 지역 향권의 추이, 한국문화 11집, 1990에서 이런 사정을 고찰했다.
것이다. 성리학적 이념을 강요하면서 곳을 음사라 해서 공격할 만한 토착
적 세력이 협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함경도나 평안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49) 민이 우리-향의 압력으로 인해 곳을 변화시킬 만큼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항통신 사회의 구조가 달라진 이 지역에서 활출의 흐름과 발전은 여명게
가능하게, 활출의 분포를 보면 항해도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실 만큼 광범위하다. 그러나 김일출의 조사 보고를 보면, 대체로 분포지의
특징이 드러난다.

둘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탈놀이가 황주, 봉산, 서홍, 평산을 연결하는 선 즉
황날지(八域誌)의 이른바 남북직로(南北直路)의 서편의 주요한 읍(邑) 및 장거리
러들에서 생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탈놀이는 복으로는 재령강을 건 서부 평야
지대와 남으로는 휴성강 서편 일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탈놀이는 같은 항해도에서도 물산이 적막한 산간 지대에는 없고 농산물이 비교
적 풍부하며 곡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한 야지(野地)와 소도시
를 배경으로 성행되었다.(50)

1950년대의 조사 결과이므로 200여년 전의 사정과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항해도 활출이 본격적인 연행물로 부상한 이후의 사정으로 이해하
는 데는 대차가 없다고 본다. 《경세행복》에서 “南北 두 도는 많은 넘으나
사람이 드물고 평탄한 전지가 아주 적다. 그런데 인삼·봉포·은·배와
여획의 이익 또한 많으니, 남도에 시행하는 법으로써 생활 수 없다.”(51)
라고 하여 서북 지역 경제 사정의 특수성을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항해도
활출 분포지의 특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특히 항해도는 재령강 유역의
넓은 평야 지대를 갖고 있었기에 상업적 이익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생기
는 이익도 적지 않았다. “양반은 적고 상민은 많으며 노비는 적고 고공은

(49) 항해도 곳이 다소히 원초적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은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
다고 본다. 함경도 무속이 비교적 고정을 간직하고 있는 점도 지역적 여건과
아울러 항해도 지역에 곳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할 만한 토착적 세
력이 없는 대지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50) 김일출, 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 과학원 출판사, 1958, 124~126면.
(51) 《경세행복》권4, 천관수제, 군현분등, 고석규, 앞의 논문, 60~61면.
많다. (雨班少 常民多 奴婢少 屠工多)”는 사회적 여건은 삼남 지역보다 이 지역에서 경영형 부농과 같은 새로운 농업 세력의 성장용이하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52) 전전 황해도 탄출이 다분히 도시 탄출의 성격을 지닌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기 일원의 산대놀이패들의 초창 공연이 반면하게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기 지역과 황해도 지역의 탄출은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게 되었다.

전전 황해도 탄출의 성성에 관해사는 자생적 관찰을 실 수 있다. (53) 어느 지역이나 마을건이 벌어지면 여기에 덕분이 간단하게나마 가면을 이용한 탄놀이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전승되는 탄출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지역에서 본래부터 있었던 농촌 탄출의 실상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 없다. ‘산대도감 계통곡’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큰 이유는 이 지역 농촌 탄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데에도 있다. 그러나 전전 황해도 탄출이 경기 지역 산대놀이 계통과 차이점이 분명한 만큼 둘 사이에는 엽연히 자생적 성격과 교류의 성격을 따로 논해야 될 것이다.

황해도 탄출의 큰 특징은 이사충이 직접 연회자로 참가한다는 데에 있다. 오평목의 기록보다 더 분명하게 이사충의 탄출 참여가 드러난다.

이것은 황해도 탄놀이가 중소 토지 소유자인 한양(関陽) 및 시장 하급 관리들 이 그 지역의 소생산자 ---- 농민 및 상인을 상대로 노는 놀이였거나 또는 농 민들이 직접 놀아 온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54)

해주는 황해도내 정치 경제 문화의 지방적 중심지였으며 또 중국과의 해상 통로 에 위치하고 있던만치 외국 무역 및 국내 무역에서 자라난 대소 상업 자본들이 여 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탄놀이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절호의 토양으 로 되었다. 또 여기에는 봉건 정부의 교법에 모여든 가무인이 있었고 통인창(通引願)을 중심한 하급 관속과 한학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탄놀이는 이들에 의해 오랜 전통이 계승되었던 것이다. (55)

(52) 김용성, 중보관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II, 1990, 273, 274, 346면 참고.
(53) 조동일, 앞의 책, 88~91면 참고.
(54) 김일출, 앞의 책, 127면.
이서충이 직접 연회자로 등장하여 공연한 사정은 고성의 경우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고성의 경우, 시절과 탈출을 논 것은 자신들의 세의적 목적에서 시작하여, 항권과 관련된 정치적 목적을 따고 있었던 데 반하여 황해도의 시절은 이것과 달랐다고 본다. 이 지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창기 해양의 세력이 미약했으며, 도물게 시행된 항약 및 항소의 규정은 항임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지역 이서는 해양과 관계가 아니고 항임과의 관계가 중요하였는데, 삼남과 같이 항임층과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를 지속하거나 그들의 세력을 넘볼 수 없었다. 군포의 남부 여부로 구별되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던 항임과 이서는 실체에서 항권을 항임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세 운영권에 종속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남쪽지방의 이서들은 교환하고 사지하고 방자하여 이전 자리를 대체로 전하는 일이 드물어서 오히려 북쪽의 이서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역시 이전에게도 복된 일이 아니야.”(57)는 기록은 이 지역 이서충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한다. 항임과 계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권 장악의 음직임이 적었던 이 지역 이서충은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하던 바였다.

이 지역에서 정착 중요한 문제는 항-이서 간의 항권 대립이 아니라 수령의 갈등이었다. 경제적 성장에 배경으로 새로운 항권 장악의 욕구가 가신 영향을 부상은 수령의 무녀 청탈의 주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매항도 신항충에게 실질적 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신분상승의 의미만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어서 신항충의 항권 장악 의도와는 거리가 있었고 신항충은 또다른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수령의 매항이 전적으로 수령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자 항-이서층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조가 “서울의 수령으로 매항의 설이 없으면 가히 황태할 수 있다.”(58)고 한 것은 이 지역에서의 매항이 대단히 심각했는
음을 말해준다. 이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서는 신분적으로 지위의 보장이 타 지역에 비해 불안정했다고 본 수 있다. 이것은 부채 손해로부터도 부채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부를 축적할 가능성을 타 지역의 이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였다. 

탈출의 영향이 이서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이서층의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서는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한 부민층을 함께 포용하면서 현실적 방편을 마련했다. 부민층은 우세한 현지의 경제 활동이나 경영형 농업 활동을 유리하게 하고자 했으나, 근역 면제 대위의 특혜만 받았을 뿐이다. 한편으로 매각이 극심했다는 하는 이전에는 이 지역 부민층의 성장이 타 지역에 비해 대단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해도 탈출의 풍토는 이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본다. 구전으로 전하는 정조시인 일가가 약 200년 전의 일이었다고 하므로 앞서 언급한 사회적 상황의 시기 대체로 일치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서들이 연회자로 직접 참가하여 탈출을 놓았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 탈출은 허무한 고려 탈출, 부족 본전의 야전 무리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전 무리 중 각자가 하나씩의 역할을 체력적으로 전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탈의 주역은 탈출에 출해야 하는 이의 경우는 그 선조 20대에 걸쳐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것이다.”라는 보고는 봉산 탈출의 연원과 이서층 연회자의 시작 시기를 소급할 수 있게 한다. 이 구전을 신빙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서층의 탈출 참여가 본격화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순은 상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의 발달과 함
께 상인과 이해 관계를 가진한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인과 이속은 그들의 오락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이에 참가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63)는 견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속에게 탈출이 그들의 오락물이 된 이면에는 그들의 생활과 의식이 민과 근사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필요에 따른 한 방편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황해도 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도시탈출은 이속의 경제력과 생활의 여유를 배경으로 자라난 화려한 놀이”(64)라는 주장도 야류·오광대에 한해서는 타당하지만 황해도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이서의 선택은 향권의 장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부민들과의 밀착으로 귀착되었다고 본다. 이서는 해도 야류·오광대의 이서층과는 서열이 낮은 층이었기에 그 필요성을 강했다. 김일충의 보고를 통해 보면 이 지역은 대체로 이서층 중에서도 하급 관속이 연합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급 관속은 명주와 군주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청사나 효사 등의 이서 집단과 신분적으로 계시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각각 작행과 마명의 관할 아래 운영되던 사령청과 군령청 소속이었기에 야류·오광대의 이서층과 대등하게 경제적 여유를 논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상인이나 이속은 양반과는 달라도 체면을 존중하고 위엄을 차릴 필요가 없다”(65)는 견해는 하급 관속의 경우만 타당하다.(66) 황해도의 경우, 이들은 부민층과의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려 했으며, (67) 부민층은 이들의 탈출 연행이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유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이다. 황해도 탈출의 성격은 이런 측면에서 야류·오광대와 차별적임을 지

(63) 조동일, 앞의 책, 93면.
(64) 조동일, 위의 책, 같은 면.
(65) 조동일, 위의 책, 같은 면.
(66) 여기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서층의 성격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67) 물론 여기에도 적정 이서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이서층의 탈출 참여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야류·오광대의 이서층이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고, 하급 관속이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탈출에 참여한 이서층의 성격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하급 관속의 탈출 연행을 상위의 이서층이 묵인,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지역 이서층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야류·오광대에 관여한 이서층과는 차별이 있다.
적할 수 있다.

4. 호남지역 향촌 사회 구조와 탈춤 부채 원인의 한 측면

호남의 향촌 지배 구조는 앞서 제시한 李惟泰의 글(雨湖是嶺南과 달라
儒가 한반 鄉所에 받을 들여 놓으면 일체 士林의 모임에 기위주지를 않는
나)에서 짐작할 수 있다. 儒과 鄉의 나림이 분명하다 했고, 서로가 향권을
장악하기 위해 평평한 긴장 관계를 지속시켰다. 이런 사정의 이면에는 염
란 이후 17세기 鄉案의 重修가 관련되어 있다. 호남의 향안은 현전 자료가
대단히 적어 그 실상을 온전히 알기 어려우나 南原의 경우를 통해 대강은
정적할 수 있다. 염란 이후 남원은 안동보다 3년이나 짧게 향안의 중수
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鄉規의 重修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촌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향정과 향안이 소실되고 향규의 실
행이 멈춰진 등을 타 鄉外人들도 향안에 입목되어 향안을 까져 되자 사대
부들은 그들과 함께 향안을 망가된 것을 뒷받침하게 여겨 鄉中事에 대하여
일체 가부를 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無識 無恥한 무리가 향안 입목과
향안을 빼앗기, 起家의 방편이 상아 더욱 奔競雜亂하여 향정이 격화되었
다. 이 와중에서도 유목 光州만은 박광욱, 기대승, 박순 등이 앞장서 마련
한 향규에 의하여 향규를 재건하고 향풍이 엄정하고 기강이 유지되어 이웃
한 순천, 장성, 평창 등지의 향규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터의 발언
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호남지역 儒의 향촌 지배에 관해서는 두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첫째는
염란 이후 儒의 향촌 지배가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오히려
염란 이후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儒에 의한 향촌 지배가 재확립되었다는
견해이다. 전자는 19세기까지의 사정을 일괄적으로 해명하는 데에 유용한
반면 후자에서 논거로 제시하는 향안과 향규의 중수가 제대로 시행되었
논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남원, 담양, 광주, 순천, 장성, 영

(68) 박순, 앞의 논문, 87면 참고.
압 동지의 향안 실시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17세기 중엽에 류에 의한 향 안 실시 지배가 제각각된다는 주장이나 19세기에 이르러 이들 류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일관있게 해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필자는 이 두 견해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향안에 임묵된 자는 그 자체의 적합 함을 떠나 향안이 된다. 남원의 향안 사건에서처럼 향의인이라도 수령과 독립의 맥이 향안을 있게 될 수 있던 것이다. 후자의 견해에서 본다면 제18세기에 향 안 실시와 관련하여 향안의 자실을 문제삼는 흔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불과 몇 년을 사이에 두고 향안의 중수가 향안의 문제가 일기로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17세기 호남에서 실시되어 향 촌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 향안의 실시는 향의 인 등으로 구성된 향집중이었거나 적어도 류가 이들 향안 세력과 타협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삽다. 향안의 실시 주제를 굳이 류로 한정시켜 이해해야 할 결정적 근거가 없는 한, 향안의 실시와 향촌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진 이면의 이런 사정이 잡차 류의 세력 약화와 직접되어 19세기에 이르러 급격한 위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7세기 '둡다'의 통해 본 남원의 향촌 사회에서, 임란 전의 류가 류보다는 임란 이후 남원으로 이동해 왔거나 향리, 서얼, 부농 등의 신분 상승에 의한 새로운 계층이 향안에 임목되면서 류 중심의 향안은 태화되고 18세기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신했고 만 사정(69)을 고려한다면, 필자의 견해에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 향촌 사회의 흐름은 류가 향의 우위에 있으면서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호남의 류는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는 기록이 산재되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고 하겠다.(70)

(69) 김호일, 17세기 '두두'의 류입적 기준 및 차계에 대하여, 조선후기 향양연구, 민음사, 1990, 65면 참고.
(70) 구체적으로 19세기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임남의 경우, "상주는 류중이 대 신이 스스로 갖춘 제도 내의 종요적인 범위에도 더 격추여 문명에 정착한 기록이 없다."(서도문고 전13 년 7월 8일)고 지적되듯이 19세기 중엽까지도 수령과 향 주도의 향촌 지배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도정 운영의 관리자성이 아닌 개별적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일장이었기 때문에 19세기 농민 향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뿐 아니라 농민층에 의하여 집중적인 공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호남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1867년의 '두두
5. 후속 연구에 대한 전망

이 글은 필자가 계획한 탈출 연구의 2차 작업의 시작에 해당된다. 논의의 성격이 다분히 시론적이어서 곳곳에 논리의 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촌 사회의 구조를 좀더 전취할 생각이다. 특히 호남과 황해도 지역의 사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명한 입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어서 필자가 기왕에 발표한 탈출 관련 논문을 沈香(沈香) 儀式 및 농촌과 연관시키고 이어 호남지역 항촌 사회의 구조를 포괄하여 다름으로써 이 지역 탈출의 부재 현상을 종교적 측면(形成的 측면)과 사
회적 충위(연행물로의浮上の촉면) 두 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탈출 연구는 국문학과 민속학, 그리고 국사학의 집적된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문화의 입체적 현상의 하나로 파악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